

'새로운 빅 브라더' 플랫폼이 더 위험한 이유

경제포커스



이성훈
테크부장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치적 성향이 리버럴(자유주의)인 것은 아이러니다. 반도체·플랫폼 같은 빅테크 산업의 본질은 독점력이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기성 권력과 산업의 반대편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탄생하고 성장했다. 육하면서 달다고 했던가. 현재 전 세계 구글 이용자는 약 40억명, 페이스북은 30억명. 인류 역사상 어떤 국가나 권력도 가져보지 못한 독점력이다.

친구 등 거의 모든 정보가 수집된다. 이런 소소한 정보(마이크로 데이터)를 최근 인공지능(AI)으로 통합·분석하면서, 거대 플랫폼은 본인보다 자신을 훨씬 잘 아는 '뉴 빅 브라더'가 됐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우리가 등록한 정보 외에 생각과 습관, 관심사 등을 타임라인이나 '좋아요', 댓글 등의 기록을 토대로 분석한다. 'AI 비서' 같은 이름이 흔하긴 하는데, 이중 어떤 누가 상사이고 누가 비서인지 알기 어렵다. AI가 현재는 뒤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행동까지 예측하는

거대 플랫폼은 새 빅 브라더 독점력은 역사상 가장 강해 자유주의 방패 뒤에 숨어 전세계에 절대적 권력 행사

모델을 만들고 있으나, 쥐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갈 날이 멀지 않다.

원래 '빅 브라더'는 경계와 저항의 대상이다. '뉴 빅 브라더'는 다르다. 여러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거대 플랫폼의 속민(屬民)이 되고 있다. 플랫폼의 절대적 영향력을 통제하고 분산할 장치를 만들고 불법행위를 조사하면, 이용자들이 나서서 반발한다. 지난달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범죄 방조 혐의로 프랑스 정부에 체포됐을 때, 영국에서 폭동을 촉발한 가짜 뉴스 유포 책임을 물어 X(옛 트위터) 수사를 검

토했을 때도 그랬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인 X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땐 이윤배반적 상황을 맞게 된다. 트럼프는 언론을 적으로 공격하는 대표적 스트롱 맨이다.

거대 플랫폼은 국가라는 경계에도 갇히지 않는다. 영향력이 전 지구적이다. 거대 플랫폼 사용 인구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스마트폰 보급률(세계 평균 약 70%)과 비슷하다고 본다. 80억 세계 인구 중 거의 55억명이 이른다. 거대 정보가 서로 엮이고, 가짜 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면 그 파괴력은 상상 초월이다. 그들의 정보력은 일개 국가를 넘어섰고,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이들에게 투항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정치 권력과 차이가 있다.

최근 거대 플랫폼에 대한 정치 권력의 규제, 이에 대한 빅테크의 반발은 새로운 빅 브라더와 올드 빅 브라더가 벌이는 권력 싸움이 본질일지 모른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는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거대 플랫폼의 앞날은 예단하기 어렵다. 개인 정보 보호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유주의'라는 화장까지 하고 있다. 어느 순간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기술 발전을 두려움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대 플랫폼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김준의 맛과 섬 [207]

광천 토굴 새우젓

등줄기로 흐르던 땀이 멈추면서 닭살이 돋고 오싹해졌다. 웅암리 새우젓 토굴에 들어섰을 때다. 갑자기 34도에서 14도로 이동했으니, 몸이 놀랄 만하다. 새우젓은 기온 14도, 습도 85%가 유지되어야 맛있게 발효된다. 이보다 낮은 기온에서는 발효되지 않고, 높은 기온에서는 부패한다. 기온과 습도 두 조건을 갖춘 곳이 흥성군 광천읍에 있는 웅암리 토굴이다. 덕분에 바다와 접하지 않는 내륙에서 새우젓 고장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옛날에 어항제를 해마다 지낸다'고 했다. 이들 배에 싣고 온 건어물과 젓갈 등 해산물과 섬살이에 필요한 생필품이 웅암포 제방에서 거래되었다. 초기 광천 시장 모습이다. 당시 활동했던 보부상을 통해 흥주, 결성, 청양, 보령, 대흥 등 역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토굴 새우젓은 한 주민이 폐광 경매에 보관한 새우젓이 부패하지 않고 잘 숙성된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주민들은 마을 뒤 당산 아래에 굴을 파서 새우젓 보관용 토굴을 만들었다. 이후 벼 품종 개량으로 쌀 생산량이 늘고, 안감망 등 젓새우잡이 어렵도 발달하면서 토굴 역할도 커졌다. 토굴은 저온 저장 시설이 없었던 시기에 장기간 새우젓 맛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새우젓 산지로 유



명한 신안 전장포에도 한때 폐광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했다.

아쉽게도 1970년대 천수만 수심이 낮아지고, 안면도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웅암포구는 폐쇄되었다. 게다가 인근 바다에서 젓새우도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웅암리 새우젓 토굴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등 내륙 교통이 발달하여 신안과 목포에서 질 좋은 오젓과 육젓 등을 구입해 토굴에서 숙성시켰다. 또 가정마다 좋은 냉장 시설을 갖추면서 토굴 새우젓 본연의 맛을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기회도 늘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 속에 천연 발효 시설인 새우젓 토굴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증시 불안 키우는 '금투세 논란',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내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반대해온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초과 수익에 대해 22% 이상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윤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속속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무리하게 시행하면 1400만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이소영·전용기·이연희 의원 등도 "증시 체력 저하" "자본 시장 선진화부터" 등의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시행"을 주장한다.

교동정리 열쇠를 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

고 있다. 지난달엔 '유예'를 언급하더니,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린 뒤 시행'으로 말을 바꿨다. 또 지난 1일 국회 양당 대표 회담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자, "자본시장 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요즘 서울 증시는 미국 경기 침체 위험에 따른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반도체 경기 피크론,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으로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금투세 변수까지 악재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가 '불확실성'이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금투세 논란이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당초 금투세 도입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폐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만약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할 경우, 주식 관련 조세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靑 친인척 감시팀장이 오히려 文 자녀 해외 집 구매 도왔다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청와대 친인척관리팀장 신모씨가 직접 현지에 가서 주택 매입 등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이 제기되자, 신씨가 타이스타렛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신씨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다.

역대 정권이 민정수석실에 친인척관리팀을 별도로 둔 것은 대통령 가족의 불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대통령 가족이 불법 행위로 감옥에 간 것은 대통령 권력에 접근하려는 부나방들이 가족 주변부터 공략하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민정수석실만 해도 친인척관리팀은 대통령 가족이 '업자' 등 주요 인물을 만나는 정보를 입수하면 달려가 제지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에게 친인척관리팀은 성가신 존재였다. 그런데 문재인 친인척관리팀장은 누가 봐도 이상한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직접 도왔을 뿐 아니라 불법 의혹을 덮기 위한 대응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가족 비

리를 사전 차단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의혹을 도왔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는 2018년 타이스타렛 임원으로 취업해 월급 800만원과 집세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받았다.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데도 이 전 의원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에게 그런 혜택을 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총선 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금전 이익을 얻고 자리를 준 것은 '뇌물 정황'이다. 청와대 친인척관리팀장이라며 서씨 경력을 모를 수 없는 만큼 그의 항공사 임원 채용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이 맡은 공직 책무였다. 그런데 개인 회사 비서처럼 다혜씨의 부동산 매입을 챙겼다.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장은 감시가 아니라 비위에 협조하는 정황까지 보였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며 한마디 해명도 없이 뚱개고 있다.

젊은 선수들 땀으로 실속 챙기는 횡포, 배드민턴협회뿐이겠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서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 등 각종 불공정한 협회 운영이 드러났다.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등 선수들을 묶어맨 정황도 밝혀졌다. 지난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협회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문체부가 조사단을 구성해 협회를 점검한 결과다.

협회 회장 등은 지난해와 올해 후원사로부터 셔플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사에 구매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 후원받기로 하고 약 3억원 상당 물품을 지급받아 임의로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횡령과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일부 임원은 후원사 유치 기여 명목으로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챙기기도 했다. 세계적인 선수가 속한 협회가 구멍가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수들을 묶어맨 규정도 적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라켓과 신발 등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용품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용하길 희망하지만 협회는 후원사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미국·일본·프랑스는 용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배드민턴협회는 전체 후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대표 선수단에 배분하도록 명시한 규정도 선수들도 모르게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조항도 여전히 갖고 있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식의 공정성 문제,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제한 문제, 실업연맹 신인 선수 연봉 상한과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

땀을 흘리는 선수들이 따로 있고 이를 이용해 실속을 챙기는 어른들이 따로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들이 배드민턴협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배드민턴과 태권도·사격 등 종목에서 협회 비리와 뇌물 수수, 성폭력, 승부 조작 등 70여 건의 체육계 비리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른 협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만연하고 있다면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할 대한체육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좌로 50% 클릭〉 하겠다는 것

newdaily.co.kr 뉴데일리

한동훈, 이재명과는 《협의》 윤석열과는 《대립》... 김문수는 《햇불》 들라

반란 직면, 생사 결전 벌여졌는데 한동훈의 국힘, 전투적이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중도·청년의 여론 성향〉 중시 의미는? 〈이재명의 사람들〉 묻지 마 뽑아준 세대 쫓겠다는 것

▲ 고용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김문수, 기회주의로 기우는 한동훈의 국민의힘 노선에 제동을 걸 것을 주문받고 있다. © 뉴시스

〈대한민국 수호전영〉은 지금 〈반(反) 대한민국 세력〉의 반란에 직면해 생사의 결전을 치르고 있다.

이 결전은 〈대한민국 수호전영〉에 ① 통합적 지도노선 ② 전투적 지도노선 ③ 내부의 〈기회주의〉 배척을 요구한다.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 전략

〈범(汎) 대한민국 전영〉은 단합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전투적이지 않다. 한동훈이 당 지도노선을 소위 〈국민 눈높이〉라는 것에 맞췄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국민 눈높이〉란, 〈수도권·중도·청년의 여론 성향〉을 말한다 했다. 지난 4.10 총선 때, 이들은 수도권·경기에서 〈이재명의 사람들〉을 〈묻지 마 뽑아〉 주었다. 양문 석도 좋다. 김준혁도 외라...

한동훈은 왜, 〈해병 특검〉 합의했나

그래서였다. 한동훈은 어찌자고 〈해병 특검〉에 협력 합의 했다. 그건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한동훈은 그런 상황을 알고서 합의했나? 그런가?

그렇다면, 자유인들은 〈제2의 탄핵〉 시나리오를 단호히 공개해야 한다. 어떻게? 정통 〈자유·보수·우파〉의 치열한 내부투쟁을 통해서.

※ 〈내부의 적〉에 대한 정면의 주도권 투쟁 ※ 〈내부의 잘못〉에 대한 근본적 노선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누가 앞장 설까? ... 김문수

누가 나설 것인가? 김문수가 앞장서라! 김문수가 〈국민의 힘 혁신의 햇불〉을 들어라! 실의에 빠졌던 자유인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호응할 것이다.

자유인들! 〈김문수 불씨〉를 키우고 불붙이고 터뜨려, 빈사(餓死)의 자유 전영을 재건하자! 〈박근혜 탄핵〉 후 자유 전영은 강남좌파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반격하라!

※ 우리는 〈국주 파시즘〉에 항거하는 〈자유 레지스탕스〉다. ※ 우리는 〈남북한 주사파 + 시진핑 + 푸틴 + 차베스주의〉, 그리고 〈기회주의〉에 저항한다. ※ 우리는 2027년 〈자유 정부 재창출〉을 향해 전진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이양승 칼럼: 공교육 몰락 막아야 한다

이문열 소설 속 〈엄석대〉가 커서 서울교육감 된다?

이정훈 칼럼: 〈3축 체제〉 전면 재검토하라

미사일·방사포 드론 수천개, 태거지도 오면... 막을 수 있나?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9월 9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07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